

2024 수능 국어 대비

백분위 99%를 위한 1%를 담다.

why

이
시
트

문학 - 변외편

평가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다.



* 1회차 해설

M E M O

○ 문항번호에 ★표시된 것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 선지 중  표시된 것은, 정오판단이 애매하여 지금까지 질문이 많았던 선지입니다.

○ 선지 표현 중 음영 처리 표시된 것은 꼭 숙지해야 할 개념들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가) ¹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²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³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⁴바닷가에 가 밋어 버렸다.
⁵할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⁶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⁷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⁸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⁹**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¹⁰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¹¹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¹²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¹³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¹⁴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

(나) ¹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²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³잎들 더러 찢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⁴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⁵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⁶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⁷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⁸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⁹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¹⁰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¹¹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¹²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¹³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¹⁴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¹⁵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MEMO

(다) 1사람을 짓혀 쓰고 망해를 조여 신고,
 2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3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4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5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6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7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8낙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9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잠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10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잠을 내 아니다.
 11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12평생의 곱던 입을 친 리에 이별하고,
 13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14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15홍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16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17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18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19홍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20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21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22성세(盛世)에 한민(開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23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연사」 -

- * 조대: 낙시를 하는 곳.
-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 한민: 한가로운 백성.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번>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이라는 표현을 너무 부담스러워할 실 필요는 없고 다양한 색채 표현에 주목하시면 됨.
 (다)에서는 '홍일(紅日)' '금빛' '백구(白鷗)'라는 표현에서 다양한 색채 표현을 찾을 수 있음.
- ②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을 건네는 방식의 표본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의 '꽃아, (나)의 '나무들아, (다)의 '백구야가 근거가 됨.
 → 모두 공통적으로 **부름의 표현**이 존재!
- ③ 정형적인 운율 사용 → 고전 시기에만 해당된다고 보셔도 될 듯.
- ④ '**명암의 대비**' → 시어의 의미상 (+) vs (-)의 대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냥 밝음 vs 어둠의 대비이다.
 (나)의 '어둠' vs '밝는 날'
 ⑤ 『유장하다』 : 1.길고 오래다. 2.급하지 않고 느릿하다
 ∴ '**유장한 어조**' → 기본적으로 행의 길이가 길어야 함.

M E M O

<2번>

- ① : (가)× : 화자가 현재 머무는 곳은 '갑'.
(다)○
- ② : (가)○ : '산새는 화자가 입맛을 잃은 것'.
(다)○ : 뒤의 문맥인 '내 마음이 취어(고기를 잡음)가 아 니로다라는 표현이 근거..
- ③ : (가)× : '개벽은 꽃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꽃의 세 계에 들어갈 수 없는 화자의 현재 처지는 변화하지 않음.
(다)× : 입과 괴리 상태라는 화자의 현재 처지 역시 변화 하지 않았음.
- ④ : (가)× : '말이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으로부터 성찰을 쉽게 맞다고 생각하지 말 것 !...문장번호 8~11의 형식 을 고려할 때, 특히 직유적 표현의 형식을 고려할 때 '물낮바닥' 은 '달린 문과 대응되는 의미임.
(다)× : 문맥상 '그림자는 백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
- ⑤ : (가)× : 문장번호 8~11의 형식을 고려할 때, '아이' = 화 자 자신.
(다)× : '벗님은 화자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

결국, 누가 부분 문맥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가의 싸움이었다.

<3번>

- ① (나)의 문장번호 1~2번 등, (다)의 문장번호 11,16번 등
- ② (나)(다) 모두 드러나 있지 않음.
- ③ (나)는 '나무'라는 하나의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킴.
- ④ (나)(다)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Main이 됨.
- ⑤ (나)와 (다)의 설명이 뒤바뀜.

<4번>

이 발문의 취지는 <보기>와 (가)를 비교하였을 때 (가)작품의 내용에 새롭게 드러나 있는 정보를 찾으라는 것이다.

- ① '꽃'에게 들어가려 하지만 현재 달린 문에 기대어 있을 뿐 이므로 즉, 원하는 바가 있지만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 허용 가능.
또한 운문의 거시적 본질을 고려했을 때 **'내적 갈등' '고뇌' 운 운하는 선지는 시험장에서 심하게 테크걸 이유 없을 듯...**
- ② 작품 어디에서도 향수와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음. 오 히려 원주를 참고했을 때 집을 떠나 신선 수행을 하려는 상황임.
- ③④⑤ ③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④ '~하기 위한 설정' ⑤ '~시인의 의도' 모두 작가의 의도 측면과 관련이 있으므로 굳이 꼼꼼하게 생각할 이유 없음...즉 ③ '꽃'이 작품에 등장하는지 ④ '처녀로 잉태한 것이 특별한 것인지 등의 사실 판단에 집중 했음 됨...**제발 문학도 항상 사실 판단부터 !**

2 *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낮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 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4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 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 릉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 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 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 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5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6 *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M E M O

<5번>

- ① 문장번호 9~10, 14~15 부분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드러나 있음...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님
- ② 문장번호 5 '꼭 잡은 손' → '연대' 허용 가능.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들이 아니라 시련 속에 있는 대상들이 시련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임.
- ④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관조적 심정'도 그리 적절하다 볼 수 없음.
- ⑤ 외부의 도움이 아닌 내부에서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6번>

일단, <보기> 글 자체가 '유배 문학이 가진 일반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글입니다. 고옥 눈여겨 보시길...

또한 이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 ㉤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 ㉠ 문장번호 12~13
 -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봄' → 꼭 '성찰'의 태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으면 허용 가능할 듯...
 - ㉢ 백구를 매개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음.
 - ㉣ <보기>의 문맥상 '떠나온 곳은 임금이 계신 곳. 또한 문장번호 20 '성운을 갇으려나'라는 표현에는 임금이 계신 곳으로의 복귀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평의원 시험을 통해 볼 때, **임금과 이별의 상황 혹은 유배의 상황에서 임금의 은혜(성운)를 갚고자 하는 것과 현실 정치 공간(정계)로의 복귀 욕망은 거의 동일시 되었으니 주의하시길 !**

간혹 문장번호 20 '공명도 다 던지고'라는 표현을 근거로 복귀를 욕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개인적인 공명을 추구하는 것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정치적) 적대자 등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음.

M E M 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 (가) ¹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²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³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⁴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⁵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금덥판
⁶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⁷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⁸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⁹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¹⁰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¹¹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¹²㉡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女僧)」-

- (나) ¹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²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³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⁴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⁵그 못이 아니었다면
⁶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⁷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⁸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⁹종암동 ㉢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¹⁰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¹¹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¹²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¹³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을까요
¹⁴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¹⁵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¹⁶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¹⁷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¹⁸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¹⁹그럴듯한 ㉣ 집 한 채 짓는 대신
²⁰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지,



MEMO

21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22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23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24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25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26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27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다) 1어머님,

2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3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4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5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별별 떨면서
 6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7그 가슴팍에 별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8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9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10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갓을 덮어 주며
 11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12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13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14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15그런데 어머님,
 16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17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18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19**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20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21바다로 가라고,
 22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후한을 막으며
 23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24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M E M O

<7번>

- ① : (가)(나)(다)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음.
- ② : 일단 섬장이었다면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은 정오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될 듯 싶다.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작품 내의 모든 장치들이 알게 모르게 시상 전개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즉,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는지 정도의 사실 판단으로 족할 듯..**

어쨌든, (가)에서는 화자가 여승을 먼 과거에 만났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또한 그 여승의 삶의 변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시간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시에서도 화자의 회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6행에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현재에서야 이해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하므로 시간의 변화가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도 화자는 과거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더 나아가 현재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나름 시상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③ :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야 할 것임. 일단 부정적인 현실·상황은 세 작품 모두 드러나 있다. 하지만 (가)의 경우에는 상황과 관련하여 서러움의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나)에서도 사내(아버지)의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 새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지만 그 부정적 상황 자체를 포용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에서도 아버지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리움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를 포용하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④ : 대화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뿐... '어머님'이라는 부름의 표현을 생각! (나)의 경우는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주긴 하지만 독백조라 할 수 있다.

⑤ : (가)~(다) 모두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는 가깝다. 하지만 어느 작품도 자연친화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8번>

① : '시상을 유발' : 작품 속 화자의 감정, 정서, 태도를 유발하는 그 무엇...하지만 섬장에서는 작품 앞부분에 존재하는 대상 정보를 찾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음...(가)에서는 여승, (나)에서는 아비 새.

② : '성찰이 드러나 있나 이전에 '내면'이라는 정보부터 조질 수 있다. (가) : 여인의 삶의 모습, (나) : 아비 제비 혹은 어릴 적 아버지...로서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 있다고 보기보다는 외부의 대상을 향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③ : (가)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등의 표현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의적 표현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이 간접적이다.

④ : (나)는 경어체의 사용을 통해 독자에게 보다 친근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 (가)의 3행, 8행...(나)에서는 화자의 어릴 적 가족 = 제비 가족...

<9번, 10번> 답이 너무 뻔하므로 생략!

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8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10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M E M 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학년도 수능 B형)

1“도대체 박준은 어쩌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2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3“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4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 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5“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6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7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8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9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이른다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11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입니다. 12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13“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14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15“옳은 말씀이에요. 16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17“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쩌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18“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19“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20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21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22“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23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24-이 달의 화제작, 화제작가.

25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돼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MEMO

거기에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고 있었다. ²⁶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는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함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²⁷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²⁸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²⁹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³⁰기사가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³¹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³²하지만 그 찢겨져 나간 다른 조각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³³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³⁴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³⁵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³⁶-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³⁷그렇다면 내가 좀더 설명을 하겠다……

³⁸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³⁹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다.

⁴⁰-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⁴¹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⁴²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쫓았다. ⁴³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⁴⁴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⁴⁵진짓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⁴⁶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⁴⁷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⁴⁸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⁴⁹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⁵⁰그런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⁵¹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⁵²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⁵³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⁵⁴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⁵⁵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이 나고 있는 듯이 보였다. ⁵⁶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11 읽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12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M E M O

<11번>

① 22,23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6번 문장에서 ‘김 박사가 전깃불의 비밀이 ‘박준’의 치료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 ‘나’가 신뢰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지문 전반부가 두 인물의 대화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둘 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무리없는 선지였다.**

③ 5번, 8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박사는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것을 보았다.

④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과거 표현) 자괴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지문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이었던 것은 만약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 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 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기사가 읽을 만한 곳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실망한다.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은 크게 관련이 있다.

<12번>

③ 주인공이 겪은 ‘기분 나쁜 기억과 관련된 경험과, 소설 작업 중의 경험 두 가지를 연관 지어, ‘나’가 궁금해 하던 전깃불의 공포가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① ‘마을’, ‘잠들고 있는 방’ 등의 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이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기분 나쁜 기억의 배경이 ‘고향임을 알려줬을 뿐이다.

② [A]는 ‘박준’의 시선에서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④ 박준이 겪은 두 가지 경험(사건)에 대하여 박준의 입 장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⑤ 사건에 대한 박준의 시선만을 담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개인의 경험일 뿐이다.

M E M O

<13번>

〈보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신적 외상 ← 충격적 경험의 기억(개인적, 사회적)
 충격적 경험의 기억 들추기 → 말문 트기
 소설 : 개인적, 사회적 말문 트기

⑤ 23번 문장에서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장의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은 이 방법이 36번 문장의 '위험한 질문'과 유사한 방법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들추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질문'을 통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애초에 고통을 들추는 '위험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말문 트기 방법인데,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이라는 표현은 말이 맞지 않는다. 즉 이 선지는 <보기>와 정면으로 불일치한다.

① '전짓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반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51번, 53번 문장을 보면, '박준'의 '소설 작업'에서의 '자기 진술'은 전짓불 아래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문에서 박준이 소설 작업 중에 공포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아리까리한 학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서 분명 말문 트기는 고통을 들추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관계없다.

③ ②선지와 동일하다. '박준'의 '소설 작업'에서의 '자기 진술'이 전짓불 아래에서의 일방적인 진술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됨을 알 수 있다.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은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것이 맞다. <보기>에서 정신적 외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감상은 허용 가능하다.

13 *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짓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짓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